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필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모금주소: 927-12-838466(농림)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자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여름방학·휴가 테마는 '나눔'

각 종단·사찰,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

"뭔가 나눔을 실천하면서 더운 여름을 이기는 방안은 없을까?"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연주(26)씨는 6월 말부터 방학을 즐기고 있다. 시간이 많이 생각되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평소 못 읽었던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저런 계획으로 들떠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인근 노인복지관의 봉사자 모집 광고. 이씨는 자신의 이번 방학 테마를 '나눔'으로 잡았다.

7월, 방학 시즌을 맞았다.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에 들어갔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방학도 곧 다가온다. 늘어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훌륭한 피서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직장인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여름휴가는 물론이고,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5일 근무제 때문이다. 주말을 이용해 부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 자연스러운 '나눔 학습'이 된다.

그러나 유혹대신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고민은 따로 있다. 나눔을 실천하고는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싶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각 종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 소식만 눈여겨 봐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지난해에 이어 '1사찰 1자원봉사단' 운동으로 자원봉사자를 자연스럽게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각 교구·분·말사 180여 사찰에 자원봉사단 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태종복지재단(02-575-3467)은 죽을



방학으로 주5일 근무로 휴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각 종단과 사찰이 나눔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꾸준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에 입박한 환자들을 위한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의 확대 실시와 전문가 과정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반 봉사자들에게는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7월 26일-28일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은 일반봉사자들의 경우, 현재는 신하 복지관에 연결해 주고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무실 교육보다 현장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한 8월에는 종단의 지원으로 위탁대 사회 복지학과 학생 16명이 스키랑가 네골보지 방학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각 교구·분·말사 180여 사찰에 자원봉사단 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태종복지재단(02-575-3467)은 죽을

종단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사찰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나눔'을 실행하는 곳도 있다. 마산 정법사(주지 지태, 055-246-8393)의 경우 무료급식 및 결식아동 돕기, 지역 독거어르신 지원 등을 통해 몇 해 전부터 사찰 봉사단을 꾸리고 있다. 또 천축사(주지 현공, 02-954-1474)도 '불교사회봉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한편 '사찰 복지관'을 표방하고 있는 수효 새주지 무구, 02-313-3060)는 수효복지대학 수강생과 법회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시설 어르신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권유하면서 꾸준히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시흥장애인복지관 인형극으로 '웃음잔치'

"어흥, 배가 고파 할머니를 잡아먹겠소." 시흥장애인복지관 강당 무대 위가 환하게 비춰진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팔발을 때는 할머니를 위협하자 객석에 초대된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를 응시한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는 6월 29일 지역 장애아동 및 부모님, 장애아르

신들을 대상으로 폐포로 인형극회가 공연하는 '팔족할멈과 호랑이'를 펼쳐냈다. 이번 공연은 그 동안 문화 공연을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시흥장애인복지관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기도 했다. 학부모 고정연(35)씨는 "우리 아이가 즐



'팔족할멈과 호랑이' 공연을 관람하는 시흥장애인복지관 어린이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즐거은 마음가짐으로 어르신들의 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연꽃팀. 7월 6일에도 연꽃팀의 봉사 원력이 활짝 피어나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마사지 봉사 연꽃팀

"할머니 시원 하시죠?"

7월 6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장애인 복지관(관장 이윤화) 물리치료실 앞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누운가를 기다린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발마사지 봉사회 연꽃팀(팀장 김효순)이다.

소아마비로 고생하다 얼마 전 다리 골절상까지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박동자(78·가평)할머니도 일찌감치 대기하다 봉사자들이 나타나자 반색한다.

"처음에는 이런 내 발이 부끄러워 여기 나오지도 못했어요. 지나치는 사람까지도 '징그럽다'고 하니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발마사지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데요."

이 할머니의 말에서 연꽃팀의 인기 비결이 드러난다. 바로 봉사의 당연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기도 한 '진심'과 '정성'이다.

"마음'이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르신들 건강도 좋아지세요. 그것을 아나까 더 잘 해드리고 싶죠."

한 어르신들의 종아리를 지압하면서 김효순(48) 팀장도 '정성'이 연꽃팀의

최대 장점이라는데 동의한다. 거기다 즐거운 마음까지 더해졌다. 늘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정기준(53)보살의 경우 자원봉사 원을 세우고 스스로 찾아 나서서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꽃팀의 '청일집' 장상문(49) 거사도 봉사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눈에 띈 복지재단의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서 인연이 맺어졌다. 봉사를 택했다고 한다.

정성으로 봉사를 즐겁게 하는 이들답게 일상생활도 취미생활도 즐겁게 한다. 3년 넘게 한결같이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열마나 고마운데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지만 '딱 하나'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박광순(50)보살은 말한다.

"발마사지 팀들이 좀 더 양성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스킨십을 통해 외로움도 덜 느끼시고 볼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기쁨이 참 크거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이런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애인 재활 후원해 주세요

북부종합복지관 근처는 강북 재개발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여건을 가진 이웃들과 지역 성인 장애인들이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성인장애인은 재활

가능성이 높음에도 결연후원이 잘 되지 않는 대상자들. 연꽃팀 봉사자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직접 봉사 못치않은 훌륭한 일"이라며 후원을 호소했다. (02)934-7711

사찰건축 전문시공업체

사찰, 단청, 문화재, 건축, 토목...

불교문화재 보존과 완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면 과거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옛 도시..

서원경에서 문화재 공사의 새로운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瑞都建設株式會社 代表 曹奉鉉

忠北 清州市 上黨區 龍岩洞 1558 1층

전화: 043)294 - 6700 / 전송: 043)294 - 5434 / H·P: 011 - 463 - 1718